

노인의 생활 만족도 영향 요인: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모진아, 이경희*

¹한국보건 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본부, ²세경대학교 간호학과

Correlates of life satisfaction in the Elderly :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Jin-A Mo¹, Kyung-Hee Lee^{2*}

¹Department of New Health Technology Assessment, National Evidence-based Healthcare Collaborating Agency

²Department of Nursing, Saekyung College

요약 본 연구는 최근 10년간 해외 학술지에 게재된 복지관 이용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증진하기 위한 한국형 노인 생활만족도 도구 개발 및 복지관 운영 및 정책 개발 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에 사용된 문헌은 2017년 11월 1일까지 게재 된 국외 논문을 Medline complete, Pubmed central, Scopus를 통해 검색하였다. 검색 용어는 “Elderly . OR aged/) AND Personal Satisfaction/ or life satisfaction. mp”를 사용하였고, 검색된 595편의 초록을 통해 최종 6편의 연구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각 연구의 내용을 정성적으로 분석한 후 3편 이상의 정량값이 있는 요인들은 메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노인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신체적 건강(통합효과크기 0.582, p=0.000), 정신적 건강(통합효과크기 0.423, p=0.000), 경제적인 문제(r=.51, p=.001), 사회활동, 일상생활정도가 영향요인을 분석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노인의 생활 만족도의 폭넓은 이해뿐만 아니라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고령자 취업의 사회적 함의 및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convenience to the senior center staff and policy makers through a research of "Life satisfaction" in the senior centers with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the considerations of the elderly, published in foreign journals for the past 10 years. We searched published studies in the Medline Complete, Pub-med central and Scopus databases from January 2007 to November 2017. The main key words used "Elderly AND(And OR aged) AND Personal Satisfaction/ or life satisfaction" and out of 595 searched articles a total of 6 studies were selected. After qualitativ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the study, meta - analyzes were conducted for factors with more than three quantitative values. The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ere physical health (pooled effect size 0.582, p = .000), mental health (pooled effect size 0.423, p = .000), economic problems (r = .51, p = .001), social activities, and daily living.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hich provides an understanding of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would contribute to provide general information for developing social consensus on the employment in the super aging society should help improve the quality of welfare facilities for senior citizens in the future.

Keywords : Elderly, Life Satisfaction, Meta analysis, Senoir center, Systemic Reviewer

*Corresponding Author : Kyung-Hee Lee(Saekyung College)

Tel: +82-33-371-3164 email: eamilriona@hanmail.net.

Received December 20, 2017

Revised (1st January 2, 2018, 2nd January 4, 2018)

Accepted January 5, 2018

Published January 31, 2018

1. 서론

1.1 연구 필요성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한 다양한 문제 중 시설 이용 노인의 의료비용 및 삶의 질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시설이 아닌 노인의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생활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1]. 이를 반영하듯 복지관과 경로당, 노인교실과 같은 노인여가복지시설은 2009년 61,065개소에서 66,292개소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 노인여가시설은 노인의 사회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해 건강증진, 질병 예방과 취미 생활 및 학습프로그램의 제공으로 건강한 노후 및 일상생활의 안정을 돕는 제도이다[3]. 그중 복지관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로 매주 평균 2.6일을 이용할 만큼[4], 다른 여가 시설보다 이용률이 높다. 그러나 경로당과 복지관 모두 사회 참여 활성화 및 성공적인 노후 실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4]하기보다는 정부 지원금, 시설 및 공간의 부족을 이유로[5] 실비의 식사제공과 같은 단순한 서비스에 그치고 있다. 즉 노인 인구 증가로 인한 인구학적 특징, 사회구조, 경제 상태 등이 변화되었으나 노인이 변하는 환경에 적응하며 만족스럽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복지 정책의 토대를 구축[6,7]하는 데는 부족한 현실이다.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환경의 변화가 다양하지 않고, 개인생활에 대한 기대와 현실 충족 여부와의 차이가 커서 노인의 복지 상태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다[8].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10,701명을 대상으로 한 생활 전반의 만족도 조사에서 매우 만족한다와 만족한다는 35.1%[4]에 불과하다는 조사와 같이 노인 복지에 따른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만족도는 개인이 느끼는 정서적인 측면부터 국가와 사회의 지원 등 복합적으로 작용한다[9]. 즉,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삶이 만족스럽거나 행복하다고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삶을 의미 있거나 좋다고 인정하는 것이다[10]. 이는 개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의 제도 안에서 상호보완적이 되어야 하며, 개인의 신체, 정신, 사회적인 모든 부분을 포함되어야 함을 의미한다[11]. 선행 연구의 대부분은 복합적인 인구·사회적 활동 및 사회적 지지 등이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12,13,14]미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우울, 자아존중감, 죽음 불안 등의 심리학적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15,16]고 한다. 또한 복잡하고 다

양한 생활수준에 따른 노인의 욕구는 노인 주위의 인접한 환경을 중심으로 가정, 지역사회, 사회의 관심, 가치관 등이 상호작용 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생태 체계적 관점에서의 연구[12,13]등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각 연구의 영향 요인들의 결과는 상반되게 보고하고 있다. 노인의 생활 만족도 측정을 위한 도구로는 최성재(1986)의 생활 만족도 척도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11,17]이 도구는 한국 노인의 사회·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지만 문화적 적합성 여부와 삶에 있어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다차원적인 구조가 아닌 현시점만을 측정하는 단일구조라는 지적이 있다[17]. 이에 노인의 생활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통합적인 관계를 확인하는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검증함으로써 노인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경험적 기반을 토대로 노인 면담 및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문화적 적합성 여부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노인들의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는 작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통해 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및 그 효과 크기를 분석하여 생활만족도 증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목적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적, 사회적, 연구적 측면에서 확인하고 각 효과 크기를 확인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재가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 연구이다.

2.2 문헌검색방법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분석은 Cochrane coll-aboration의 체계적 문헌고찰 핸드북 Higgins & Green[17]과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18], 그리고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SIGN)[19]의 체계적 문헌고찰 안 내지침 을 기반으로 진행하였다.

2.2.1 전자 데이터베이스 검색

SIGN[19]에서는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에 대한 검색이 체계적 문헌고찰을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충족조건이 될 수 있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검색어를 설정한 후 MEDLINE, EMBASE, Cochrane Library 등의 국외 전자 데이터베이스를 탐색하는 한편, 국내 에서 수행된 연구들을 탐색하기 위해 Korea -med에 대한 검색을 시행하였다.

2.2.2 기타 문헌 검색

복지관 이용 노인의 생활만족도와 관련된 문헌 가운데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국내의 대표적 학술 데이터베이스, 즉 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 및 보건연구정보센터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중심으로 관련된 문헌을 검색하며 한국간호과학회를 비롯한 분야별 간호학회(기본간호학회, 성인간호학회, 지역사회간호학회)와 그 외 임상간호연구, 한국재활간호학회, 노인간호학회 등을 검색함으로써 만성질환자의 인지손상과 관련된 연구들이 게재될 수 있는 학술지를 총 망라하여 검색하였다.

2.2.3 검색어 설정

우선 검색어 선정을 위해 2017년 11월 1일 EMBASE 와 MEDLINE에서 “(elderly .mp. OR aged/) AND (Personal Satisfaction/ or life satisfaction.mp.) AND (factor.mp.)”검색어로 각각 검색하여 검색된 595편의 초록을 바탕으로 대상자 및 중재를 표현하는 모든 관련 용어를 확인한 후 검색어 초안을 노인 간호 관련 전문가 및 연구방법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통해 최종 검색어를 확정할 계획이다. 대상자(Patient)는 복지관을 이용하는 재가거주 노인이며 중재(Intervention)는 생활만족도, 비교 대상(comparison)은 시설에 거주하는 노인 (요양원, 요양시설), 결과지표(Outcome)로는 영향요인을 규명하였다.

2.3 문헌선정 과정

2.3.1 문헌선정 기준

복지관을 이용하는 재가 노인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규명한 연구는 연구 설계에 상관 없이 모두 포함할 것이다. 문헌을 검색하는 과정에서는 영어권이 아닌 나라의 학술지라도 영어로 작성될 수 있으므로 언어를 제한하지 않고 검색한 후, 선택하는 과정에서 원문을 확인 한 후 한국어와 영어만 포함할 예정이다. 다만, 1) 통계량을 보고하지 않은 연구, 2) 초록만 게재한 연구, 3) 동물실험 연구, 4) 고찰연구, 증례보고, 질적 연구, 5) 회색문헌(학위논문, 학회 발표자료, 임상연구등록 데이터 베이스, 각종연구보고서, 기술보고서 등)은 배제 하였다.

2.3.2 문헌선정 과정

MEDLINE과 EMBASE를 통해 검색된 문헌들 중에는 서로 중복되는 문헌들이 많기 때문에 문헌관리 데이터베이스인 Reference Managment Database (Refworks) (또는 endnotes)를 사용 하여 중복된 문헌을 제거하여 문헌목록을 작성 하며 이렇게 정리된 문헌목록을 통해 연구의 제목과 초록을 검토하여 본 연구의 문헌선정 기준에 부합된 연구인지를 결정하고자 한다. 이후 전문을 확인하며 최종 선택문헌을 결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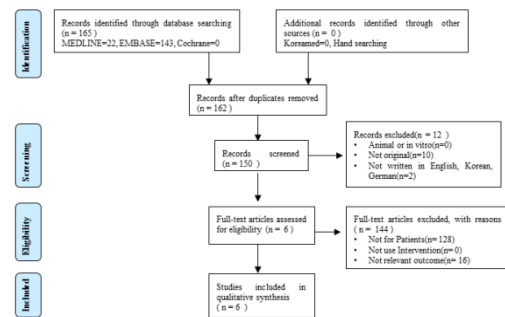


Fig. 1. Flow diagram for study selection

2.3.3 문헌의 질 평가

본 연구에서 체계적 고찰 및 메타분석을 위해 선택된 연구들은 대부분 상관관계 연구이므로 상관관계 연구 질 평가 도구를[20] 적용하여 연구들의 질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적용할 상관관계 연구 질 평가 도구는 (1) 설계, (2) 표본, (3) 측정도구, (4) 이론적 배경, (5) 통계분석 등 5 개의 평가항목에 대한 13개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이론적 배경을 평가하는 1개의 세부항목을 제외한 11개의 세부항목이 연구 방법에 대한 평가항목이다. 우선 설계 평가항목에는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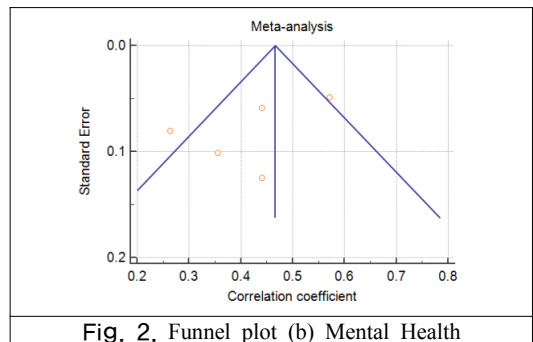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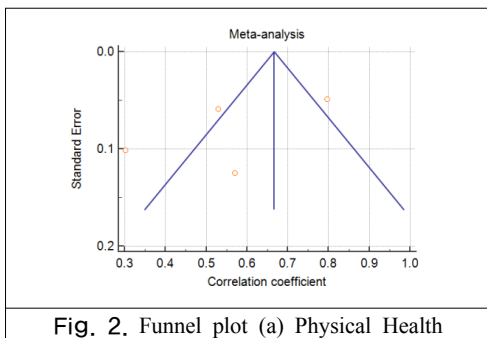
항적 설계인지 무작위 표본추출인지 등의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표본 평가항목은 적절한 크기의 표본이 추출되었는지(또는 표본크기의 정당성이 제시되었는지 여부), 다수의 기관에서 자료가 수집되었는지, 익명성이 보장되었는지 여부, 응답률이 60% 이상인지 여부 등의 세부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측정도구의 평가항목에는 신뢰도나 타당도가 검증된 도구가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내적 신뢰도가 0.7 이상인 도구들을 사용하였는지 등의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론적 배경의 평가항목은 이론적 배경이 제시되었나를 평가하는 항목이다. 마지막으로 통계분석 평가항목은 연구목적에 대해 적합한 통계 분석이 적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편향 값(outliers)에 대한 통계적 관리 방법 등의 세부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세부문항들에 대한 평가 결과 8점 이상(13점 만점)이면 연구 질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2.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를 통해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은 메타분석 방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다. 메타 분석은 동일한 주제를 가진 개별 연구들의 상이한 결과를 표준화된 효과 크기(effect size)로 변환하여 관심 변수에 대한 하나의 통계적 결론을 제시하는 방법으로[21], 연구자의 주관 및 인용한 연구의 편향 소지가 배제되고 같은 목적으로 시행된 개별 연구들을 통합함으로써 통계적 검정력이 증가하게 되어 관심 주제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흐름과 종합적인 결론을 확인하는데 적절한 방법이다[21,22,23].

문헌 선택과정에서 연구자 사이의 일치도는 SPSS 18.0을 사용하여 카파(Kappa) 분석을 수행할 예정이다. 개별 연구를 통해 보고된 통계량(t, F, p, r, X2)은 MS Excel effect size computation program[23]을 사용하여 표준 효과크기를 구하며 Q 검정을 통하여 연구들 사이의 동질성 여부를 검정할 것이다[17].

동질성 검정 후 Comprehensive Meta Analysis,2.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개별 연구의 효과 크기를 병합한 평균 효과크기를 산출할 것인데 본 연구는 주로 상관계수로 보고된 연구 결과 들을 병합할 예정이므로 평균 효과 크기를 평균 가중 상관계수로 산출하고, 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하였다. 동질성 검정을 통해 연구들이 서로 동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경우는 Forest plot과 분석에 포함된 연구들의 내용을 검토하여 동질 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요인들을 규명하며 이렇 게 규명된 장애 요인에 근거하여 동질성을 검토하였다. 예를 들어 Forest plot을 통해 효과 크기의 이상치를 보이는 연구들이 존재하는 것 이 동질성 확보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는 효과크기에서 이상치(outlier)를 보인 연구들을 제외하고 동질성을 검정하였다. 이러한 접근으로도 동질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우는 다른 어떤 요인이 장애 요인(질환 유형, 치료 유형, GFR 정도 등)을 작용하는가를 다시 검토 하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을 적용할 것인데 예컨대 질환의 유형이 다른 것이 동질하지 않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질환의 유형에 따라 나누어 메타-ANOVA를 시행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에도 동질하지 않은 경우는 개별 연구에 포함된 대상자들 사이의 변동과 각 연구의 이질성을 고려하여 가중 치를 재설정하는 임의효과 모형(random effects model)을 사용하여 평균 가중 상관계수(mean weighted correlational coefficient)를 산출할 것이다. 한편, 연구들이 서로 동질한 것으로 나타 난 경우는 고정효과 모형(fixed effects model)을 사용하여 평균 가중 상관계수를 산출할 것이 다[24]. 출판편차(publication bias)에 대한 판정은 각 연구에서 측정된 처리효과(X축)와 해당 연구의 정밀성을 나타내는 척도(표본 수 혹은 표준 오차)(Y축)를 가지고 그린 산점도(funnel plot)와 안전계수(Fail-safe number, Nfs)를 검토 하였다[17].



3. 결론

3.1 일반적 특징

검색된 총 165편의 문헌 중 6편의 1,204명의 연구대상이 선택되었다. 6편의 문헌은 모두 상관관계연구였으며, 연구 대상자의 평균나이는 62.0세였다. 연구는 인도,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대부분 유럽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재가 노인들을 대상으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4편, LiSat-11 1편, Life 3 Scale 1편 도구를 사용하여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관련성은 육체 및 정신건강, 일반적 특성(경제, 가족, 성별)을 보았으며, 가족간의 관계 및 사회생활 정도, 일상생활정도, 여가활동 등을 측정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s

Author	yr	n	age	Country	factors
Choudhary	2013	100	60~80	India	• Physical health • Mental health
Jacobsson	2016	67	44±13	Sweden	• Physical health • Mental health • Economy • Social activity • ADL
Eriksson	2012	161	73.8	Sweden	• Social activity • ADL
Tafaro	2002	157	101.7	Italy	• Mental health
Danziger	2001	426	40.5 (19-66)	England	• Physical health • Mental health • Economy
Martin-Albo	2012	293	18-70	Spain	• Physical health • Mental health

3.2 신체적 건강

육체적인 건강과의 관련성은 총 4편의 문헌에서 보고하였다. 육체적인 건강을 측정하는 도구는 P.G.I health scale, LiSat-11, Self-Concept Questionnaire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4편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확인한 결과, 통합 효과크기는 0.582(p=.000)로 유의한 상관 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체적으로 건강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간 이질성은 Q=72.097(p=.000)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Physical Health

Author	yr	Correlation		Pooled effect size(p)
		r	B	
Choudhary	2013	r	0.302	0.582 (0.000)
Jacobsson	2016	r	0.57	
Danziger	2001	B	0.7956	
Martin-Albo	2012	r	0.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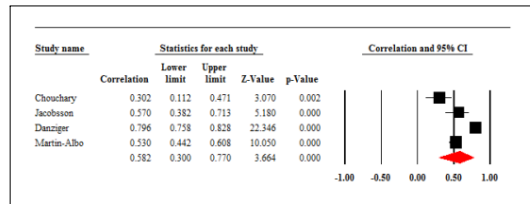


Fig. 3. Forest plot for Physical Health

3.3 정신적 건강

정신건강과의 관련성은 총 5편의 문헌에서 보고하였다. 정신 건강을 측정하는 도구는 P.G.I health scale, LiSat-11, GDS, Perceived Locus of Causality Scal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총 5편의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확인한 결과 통합 효과크기는 0.423이었으며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다(p=.000). 이는 정신적으로 건강 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간 이질성은 Q=17.070(p=.002)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Mental Health

Author	yr	Correlation		Pooled effect size(p)
		r	B	
Choudhary	2013	r	0.355	0.423 (0.000)
Jacobsson	2016	r	0.440	
Danziger	2001	B	0.5714	
Tafaro	2002	r	0.263	
Martin-Albo	2012	r	0.4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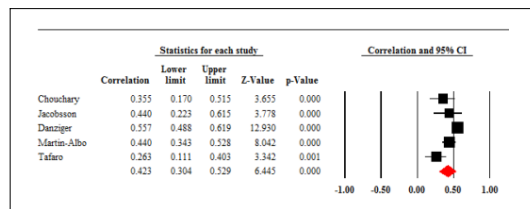


Fig. 4. Forest plot for Mental Health

3.4 경제적인 문제

경제활동과 관련성은 2편의 문헌에서 보고하였다. Jacobsson과 Lexell[25]의 연구에서는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r=0.51(p=.001)$ 로 보고하여 경제 활동이 활발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Danzi-ger와 Carlson[26]의 연구에서는 전년도 취업 여부와 관련성을 보았으며 이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다($p=.1$).

3.5 사회활동

사회생활이나 여가와 생활만족도와의 관련성은 2편의 문헌에서 보고하였다. Jacobsson과 Lexell [25]의 연구에서는 사회생활로 주변 사람과의 연락 정도, 가족간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사회활동 정도를 보았으며 모두 생활 만족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Eriksson과 Aasnes[27]는 사회 활동정도와의 상관성을 보았으며 생활만족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하지만, 2편의 문헌으로 메타분석을 시행하지는 않았다. 여가생활과 관련하여서는 Jacobsson과 Lexell[25]의 연구에서는 여가활동을 측정하였고 모두 양의 상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riksson과 Aa -snes[27]의 연구에서도 여가활동을 확인하였고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즉 여가활동을 활발하게 할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았다.

3.6 일상생활정도

일상생활정도과 생활 만족도의 관련성은 2편의 문헌에서 보고하였다. 2편 모두 ADL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Jacobsson과 Lexell[25]의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정도가 좋을수록 생활 만족도 높아진다고 보고하였으며, Eriksson과 Aasnes[27]의 연구에서도 일상생활정도가 높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다.

4. 논의

본 연구는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과 메타 분석을 통해 각 요인의 관련성(효과 크기)을 제시 하고자 수행되었다. 최종 검색된 총 165편의 문헌 중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거나 영향요인 및 결과 값을 제시하지 않은 연구는 제외하였다. 최종 선택된 6편의 문헌은 모두 상관관계 연구였으

며, 연구 대상자의 평균 나이는 62.0세 였다. 생활만족도는 인도, 스웨덴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으로 대부분 유럽에서 연구가 진행 되었다.

생활만족도를 측정하는 도구로는 satisfaction with life scale(SWLS) 4편, LiSat-11 1편, Life 3 Scale 1편으로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을 많이 사용하고 있었다. SWLS 도구는 5문항으로 주관적인 well-being을 포함하여, 간편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점[28]이 있지만 삶의 만족도를 단일차원으로 구성하였다는[17], 단점이 제기되고 있다. LiSat-11 역시 SWLS와 같이 많이 사용하는 도구로 신체 정신건강, 경제, 여가, 일상생활 등의 영역에서 각각 6점 척도로 측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호재 등(1979)을 선두로 윤진(1982), 최성재(1986) 및 정인(2000) 등이 생활만족도 척도를 개발 하였다[11,17]. 이중 최성재의 도구가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다[17]. 이 도구는 과거, 현재, 미래 의 삶에 대한 다차원적인 구조가 아닌 현시점에 측정하는 단일 구조적 측면을 측정한다[17]고 지적하고 있다. 노인의 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 및 환경과 같은 미시적 차원에서 국가, 사회라는 거시적 차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9,17]. 이에 본 연구 결과로 제시된 노인의 신체·정신적 건강, 경제, 사회생활, 일상생활 정도의 개념을 토대로 개인의 주관성, 총체성 및 다차원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즉 노인의 과거, 현재, 미래의 삶과 생활 및 한국 문화에 맞는 노인 생활만족도의 도구 개발로 노인의 생활 만족도 정도를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위한 구체적인 사회복지실천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먼저 신체적 건강과 생활만족도의 관련성은 4편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체적으로 건강할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과 같이 Melanson & Downe-Wambolt[29] 역시 건강은 노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이라고 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47.7%는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을 뿐만 아니라 염려도 많다[30]. 재가 노인, 지역사회 노인들이 건강을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은 보건소와 더불어 노인복지관이다[31]. 즉, 건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에 취약한 만성질환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31]과 경로당은 노인 여가시설로 간호 인력은 필수 인력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3]. 그러나 전체 노인 복지관 중 간호사가 상근하는 복지관은 46%로 건

강에 관심이 많고 건강에 취약한 만성질환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31]은 노인들의 건강 문제의 상담 및 건강 관련 요구도를 가장 쉽게 파악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32]. 그러나 노인 의 건강 요구 및 건강 상담 요구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할 간호사와 같은 의료 인력 은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복지관 및 경로당 이용 노인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강 사정 도구의 개발을[32]진행하였으나, 실행 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현실에 지역사회 보건소와 병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강교실 및 건강강좌를 보건소, 복지관, 경로당, 주민회관 등에서 시행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노인 건강 증진 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Jacobsson과 Lexell [25] 역시 생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명확하지 않기에 종합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다양한 도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본 연구 결 과를 토대로 신체· 정신적 건강, 경제적, 사회적, 일상생활 영역 역시 세분화할 수 있지만, 상호 연결된 부분이기때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필요할 시점이다.

본 연구 결과 일상생활 정도가 좋을수록 생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노인들의 질병 및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수행에 제한을 받을 경우 자기 효능감이 저하 되고 생활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다[33]의 연구 와 일치하였다. 노인이 일상생활을 자립적으로 유지할 경우 생활만족도 외에 노인의 일상생활을 확인하고 위험한 요인들의 시사점을 발견 하여 고령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개발 및 초고령 사회 노인의 일상생활 능력을 향상 유지 하기 위한 기초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신적 건강 부분은 LiSat-11의 정신건강 부분, Geriatric Depression Scale (GDS)의 측정은 주관적인 답변으로 측정하는 도구이다. 본 연구 결과 역시 생활 만족도는 정신건강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 이는 노인 들이 건강한 삶을 위한 정신적인 건강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우울 고독감과 같은 변수들을 활용하여 노인의 건강상태를 파악한 [34]연구와 유사하다. 우리나라 노인 우울증 환 자는 6.9%로 전체 인구 3.1%보다 2배 이상의 차이를 보인다[4]. 이로 인한 2011년 국내 노인 자살률은 10만 명당 79.7명으로 전체 인구 자살 률(10만 명당 26.5명)의 2배, OECD 평균의 3배나 되는 수치이다[1]. 한편, 노인에게 있어 의존은 정상적인

노화과정의 하나로 재가 노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복지관과 경로 당을 통해서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여가시설 노인들을 대상으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 및 정신, 심리 상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노력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노인의 취업 여부의 연관성은 없었으나 노인에게 직업은 안정된 소득의 확보와 건강 유지 및 사회적 소외와 고독감을 억제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제공한다[12]와 노인 이 직업을 가지고 있고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다[11]와 같이 경제적 스트레스 가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 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 율은 49.6% 로 경제협력개발(OECD) 회원국 평균 12.4%보다 37.2% 높은 1위다[1, 35]. 이를 반영하듯 65세 이상 노인의 고용률은 30.6%로이며, 55세- 79세 노인 중 61.2%는 일하기를 원하고 있다. 전국 347개의 복지관에서 및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인 취업 교육은 주로 컴퓨터 교육이며, 시니어 직업 능력 학교에서는 경비 및 주차원 교육, 배달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으나 실제 노인들의 직업 역시 대부분은 단순 직종[1,2]으로 제한적이다. 2006년 독일은 Initiative 50 Plus 정책을 통해 2010년까지 55세 이상 인구의 경제 활동 참가률을 50%까지 높이고, 고령자의 조기 퇴직 감축, 고령자를 위 한 임금 제도 도입, 근로자의 능력향상 요구 시 직업교육 참여 비율 확대[36]등의 국가차원의 고 령 인력 활성화 정책을 통해 노인 인구의 경제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반면 우리나라는 은퇴 후 노인이 된 후 뒤늦게 참여하기에 노인 일자리는 단순한 서비스직으로 한정되고 있다. 이에 정부 차원에서 노인뿐만 아니라 은퇴를 앞둔 중 장년층을 대상으로 고령 인력 활성화 정책의 제시가 필요하며 현 노동계와는 고령화 인구 활성화로 인한 청년 및 중 장년의 일자리 감소와 같은 부정적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토론으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노인에게 사회생활이나 여가와 삶의 만족 도와의 관련성은 2편의 문헌에서 보고하였다. 사회생활로는 주변 사람과의 연락 정도, 가족 간의 관계, 배우자와의 관계, 사회활동 정도를 보았으며 모두 삶의 만족에 긍정적인 상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홍경숙과 전대성 [37]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중 가족간의 관계는 배우자 및 자녀지지로 인한 생활 만 족도의 높은 관련성을 언급한 연구와 일치 하였다. 여기에 덧붙여 기존 연구

는 배우자 및 자녀로부터 정서적, 정보적, 물질적 도움을 받는 다고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는 평균 수명 연장으로 자녀들이 독립한 후 배우자와 긴밀하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친구와 이웃 지지 역시 생활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4]와 같이 친구 이웃과의 지지는 정보 교환 및 상호교류로 인한 이해를 폭을 넓혀줄 수 있다고 하였다. 사회적인 지지의 개념 역시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사회관계의 구조적 특성 및 기능적 특성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에 따라 다양하기에 사회적 지지의 개념 역시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37]. 즉, 생활만족도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사회적 지지의 개념 및 그 속성이 명확하지 않기에 상이한 결과로 대신 하고 있다. 생활만족도의 개념 분석을 통한 속성을 토대로 개인, 사회, 국가의 기능적인 측면, 정보적 측면 도구적 측면 정서적 측면 등으로 세분화하여 보다 정확한 측정을 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가생활과 관련하여서는 Jacobsson[25]의 연구에서는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Eriksson[27]의 연구에서도 여가 활동이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우리나라 노인의 여가생활은 주로 TV 시청 및 DVD시청(83.1%)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이 휴식(51.3%), 기타 활동(15.4%) 순으로 나타났다[2]. 그러나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관광(51.1%)을 하고 싶다고 하였다[2]. 또한 2015년 고령자 4명중 1명은 문화예술 및 스포츠를 관람하였다. 그 중 73.0%는 영화를 관람하였다. 이는 2009년 이후 증가하고 있지만 고령자의 신체 경제적인 여건으로 여전히 25% 미만에 머물고 있다[2]. 또한 박장근, 임란희와 김종도[38] 역시 노인 대상 프로그램은 노인들의 특성 및 욕구를 파악한 후 적절하게 계획되어 저야하며, 운영자들 역시 전문성이 확보되기 위해 시, 군, 구 단위 행정기구에서 연수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확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 주장과 같이 프로그램의 종류를 확대하기 보다 수준 높은 프로그램으로 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적인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이필호와 조용하[39]는 노인여가활동 등은 노인에게 노동력이 아닌 심신의 피로를 회복 시킬 수 있고 비공식적인 사회참여활동의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고독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자기존중 및 자아실현의 기회가 될 것이다. 고한 것과 같이 노인 여가활동

을 통해 노인 사회참여는 노인 우울 정서적 건강 회복 및 경제적인 부분과 연계되는 것과 같이 하나의 단위가지만 이것은 전체로 연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신체, 정신, 경제, 사회생활, 일상생활 정도로 도출되었다. 기존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생활만족도는 개인의 정서적 측면과 노인이 속한 환경과, 국가, 사회적인 부분까지 복잡하게 연결되어있어 통합적으로 접근하지 못 할 경우 측정하기 쉽지 않다. 이에 본 연구를 토대로 개인 적인 측면과 국가·사회적인 측면, 연구 영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개인적인 측면은 복지관 간호사나 경로당을 방문하는 지역 보건간호사를 통한 만성질환 관리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정책 부분은 노인 개인의 생활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제공할 수 있는 부분으로, 생활 만족도를 통해 초고령화 사회의 대비를 위한 고령자 취업 등의 사회적인 함의를 이루기 위한 노동계와 논의를 해야 할 시점이다. 연구 분야에서는 생활 만족도에 대한 명확한 개념분석 및 통계화한 결과 값을 제시함으로써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선택배제 기준에 의거하여 6편만을 분석하였기에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제한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eferences

- [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 Guidelines for healthcare health Services I II. 2017. [cited 2017. January], Available from: www.nohw.go.kr
- [2] Statistics Korea. 2017. Statistics of senior citizens, 2017. [cited 2017. September 26], Available from: <http://portal.korea.kr/nw/2/6/1/index.board>.
- [3]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Welfare of Older Persons ACT. 2017. [www. moleg.go.kr](http://www.moleg.go.kr)
- [4]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Senior survey [Internet]. 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Dec 31. Available from :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6342>
- [5] Kwak HH, Choi WK. Relationship of the Usage of

- senior centers, leisure activity participation, degree of program visualization and life satisfaction in rural elderly people, *Journal of Social Welfare Management*. vol. 3, no. 1, pp. 29-44, 2016
- [6] Mathieu Susan I. Happiness and Humor Group Promotes Life Satisfaction for Senior Center Participants. Activities, *Adaptation & Aging*, vol. 32, no. 2, pp. 134-148, 2008.
DOI: <https://doi.org/10.1080/01924780802143089>
- [7] Lee MR, Kim SH(Seon-hee) A study on psychological Wellbeing and daily living activity of the elderly in home in Korea and Japa.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6, no. 12, pp. 293-307, 2016.
DOI: <https://doi.org/10.14257/AJMAHS.2016.12.16>
- [8] Park SM, Son JA. Factors Predicting the Life Satisfaction of Older Adults: A comparative Analysis of Different Income Group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6, no. 4, pp. 97-124. 2016.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6.36.4.97>
- [9] Lawton MP, Moss M, Kleban MH, Glicksman A, & Rovine, M. A Two-factor Model of Care -giving Appraisal and Psychological Well -Being. vol. 46, no. 4, pp. 181-189, 1991.
- [10] Choi HJ, Lee YB. Life satisfaction scale for elderly: revisited.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58, no. 3, pp. 27-49, 2006
- [11] Chang MS, Park KS. Factors Affecting life satisfaction for the aged: From the ecosystem perspective,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 32, no. 2, pp. 232-266, 2012.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2.32.2.232>
- [12] Kwon JD, Cho JY., A Study of Factors Influencing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Aged,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20, no. 3, pp. 61-76, 2000.
- [13] Yoon HS, Won SW. The Impact of Spirituality and Religious Involvement on the Relationship of Health Status with Life Satisfaction and Depression of the Elderly in Korea, The Korean Gerontological Society vol. 30, no. 4, pp. 1077-1093, 2010.
- [14] Kim DB, Sohn ES. A Meta-analysis of the Variables Related to Depression in Elderly, vol. 25, No4, pp. 167-187 2005
- [15] Oh, HS. The Impact of the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Factors on the Life-Satisfaction of the Elderly vol. 9 no. 3 pp. 323-352, 2003
- [16] Son DS. The Study on the effective factors of the psychological well-being of the elderly vol. 25 no. 4 pp. 205-217 2005
- [17] Higgins JPT, Green S. Cochrane handbook for systematic reviews of interventions 5.1.0(ed), United Kingdom: The Cochrane Collaboration. pp. 33-49. 2011.
- [18]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PRISMA). [Internet]. London: 2013; [cited 2015 January 15]. Available from: <http://www.prisma-statement.org/news.htm>
- [19] Scottish Intercollegiate Guidelines Network (SIGN). [Internet]. Scotland: 2013; [cited 2015 January 15]. Available from: <http://www.sign.ac.uk/methodology/index.html#>
- [20] Cummings G, Estabrooks CA. The effects of hospital restructuring that included layoffs on individual nurses who remained employed: A systematic review of impact,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vol. 23, pp. 8-53, 2003.
DOI: <https://doi.org/10.1108/01443330310790633>
- [21] Glass, G. Primary, secondary, and meta -analysis of research, *Educational Researcher*, vol. 5, no. 10, pp. 3-8, 1976.
DOI: <https://doi.org/10.3102/0013189X005010003>
- [22] Cumming, G. Understanding the new statistics: effect sizes, confidence intervals, and meta-analysis. Multivariate applications series. New York : Routledge, 2012
- [23] Lipsey MW, Wilson DB. Practical meta-analysis. Thousand Oaks: Sage Publications. 2001
- [24] Borenstein M, Rothstein H. Comprehensive MetaAnalysis: A Computer Program for Research Synthesis. Englewood, NJ: Biostat, Inc. 2016. Available at <http://meta-analysis.com>
- [25] Jacobsson L., Lexell J. Life satisfaction after traumatic brain injury: Comparison of ratings with the Life Satisfaction Questionnaire (LiSat-11) and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SWLS). Health and Quality of Life Outcomes. vol. 14, no. 1, (no pagination), 2016.
- [26] Danziger S.K., Carlson M.J., Henly J.R. Post-welfare employ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Women and Health*, vol. 32, no. 1-2, pp. 47-78, 2001.
DOI: https://doi.org/10.1300/J013v32n01_03
- [27] Eriksson G., Aasnes M. Occupational Gaps in Everyday Life One Year After Stroke and the Association With Life Satisfaction and Impact of Stroke, *Top Stroke Rehabil*, vol. 19, no. 3, pp. 244-255, 2012
DOI: <https://doi.org/10.1310/tsr1903-244>
- [28] Diener, Emmons, Larsen & Griffin,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vol. 49, no. 1, pp. 71-75. 1985
- [29] Melanson PM, Downe-Wamboldt B. Identification of older adults' perception of their health, feelings toward their future and factors affecting their feelings, *J Adv Nurs*, vol. 12, pp. 29-34, 1987.
DOI: <https://doi.org/10.1111/j.1365-2648.1987.tb01300.x>
- [30] Statistics Korea. 2015 Statistics on the aged [Internet]. Daejeon: Statistics Korea; 2015 Sep 24. Available from: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2/1/index.-board?bmode=read&aSeq=348565
- [31]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Senior survey [Internet].Sejong: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4 Dec 31. Available from: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6342>
- [32] Ko, HN, Song, MS.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a Nursing Assessment Tool for Senior Center Nurses, *Perspectives in Nursing Science*, vol. 13, no. 2, pp. 96-109. 2016.
DOI: <https://doi.org/10.16952/pns.2016.13.2.96>
- [33] No YJ, Kim CG, Comparisons of physical Fitness, Self Efficacy,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and

Quality of Life between Institutionalized and Noninstitutionalized Elderly,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vol. 25, no. 2, pp. 259-278. 1995

- [34] Seo SH, Cho MS, Kim YR, Ahn JY. The Relationships among Satisfaction with Food-Related Life, Depression, Isolation, Social Support, and Overall Satisfaction of Life in Elderly South Koreans J Korean Diet Association, vol. 19, no. 2, pp. 159-172, 2007
- [35] OECD (2015), Pensions at a Glance 2015: OECD and G20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DOI: http://dx.doi.org/10.1787/pension_glance-2015-en
- [36]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2006)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chancen älterer Menschen(Initiative 50plus und Kombilohn für Ältere)
- [37] Hong HS, Jeon DS. The Influence of ecosystem factor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Korean Journal of 21st Century Social Welfare*. vol. 7, no. 2, pp. 265-297, 2010.
<http://scholar.dkyobobook.co.kr/searchDetail.laf?barcode=4050025421999>
- [38] Park JG, Lim RH, Kim JD. An Investigation into the extent of satisfaction of elderly residents in welfare facilities for the aged, *Journal of Sport and Leisure Studies*, vol. 18, no. 0, pp. 585-598, 2002.
<http://www.dbpia.co.kr/Article/NODE06242766>
- [39] Lee PH, Cho YH. A study on relative Influence among leisure activity, volunteering and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Interdisciplinary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vol. 15 no. 2, 2012.

모 진 아(Jin-A Mo)

[정회원]



- 2006년 2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09년 8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7년 2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2년 4월 ~ 현재 :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주임연구원

<관심분야>

근거기반의학, 체계적문헌고찰, 메타분석, 성인간호

이 경 희(Kyung-Hee Lee)

[정회원]



- 2000년 2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학사)
- 2008년 8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6년 8월 : 인하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2017년 3월 ~ 현재 : 세경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관심분야>

노인요양시설 환경, 노인의 식사